

開 會 辭

(全 文)

李 相 禹

(東亞研究所長)

저희 「동아연구소」가 「한국 국제문화협회」의 지원을 받아 열게된 “제 1차 韓·中·日 政治·思想·文化 比較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우선 동아연구소의 30명 연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아연구소는 韓·中·日이 모여 있는 東北亞와 東南亞 등 東아세아 지역연구를 위해 4년전에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현재는 주로 월례발표회와 교수간담회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 2회 「東亞研究」라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연구소는 1983년, 마테오리치의 중국도착 4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가져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한가지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나가는 계기로 韓·中·日 政治, 思想, 文化를 비교해 나가는 국제세미나를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열게된 “亞細亞에서의 共產主義 受容”은 이 새로운 국제회의의 첫 모임인 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독교의 수용, 민주주의의 수용, 과학사상의 수용, 사회과학의 수용, 서양법의 수용 등등 아세아에서의 서양의 수용과정을 다루는 국제회의를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꾸준히 발간하여 언젠가는 “亞細亞에서의 西洋의 受容”이라는 全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세아는 오랜 문화전통을 가진 곳입니다. 특히 中國, 韓國, 日本 지역에는 잘 다듬어진 수준 높은 정신문화체계가 존재해왔던 곳입니다. 이 지

역에 서양의 여러가지 사상과 제도가 전래되어 왔을 때 이곳에서는 기존 가치질서와의 충돌로 많은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은 쉽게 수용되고 또 어떤 것은 변용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거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 가치적 충돌에서 일어났던 文化接變現象을 여러가지 영역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가 이 국제회의를 시작하게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연구를 중시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미래설계의 슬기를 얻어낼 수 있는 풍부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변화에는 역사 속에서 다져져 온 흐름의 맥이 있기 때문에, 그 맥을 벗어나서는 사회변화의 이해도 어렵고, 또한 변화의 흐름을 다루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현상연구에서 역사적 시각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활용하려 합니다.

이번 회의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은 李洪九교수께서 하실 것이므로 저는 회의를 가지게된 과정을 잠깐 보고하는 것으로 개막사를 마치렵니다.

회의 참석자 모두의 성실한 기여로 이 회의가 의미있는 학술적 업적이 되도록 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회의준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분, 특히 李光麟 대회의장과 朴商台 회의조직위원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